

전주대, '내 아이를 위한' 육아맘 토크 콘서트 성료

사례별 구체적인 식습관 지도 방법 제시 학부모 반응 매우 높아

전주대가 위탁 운영하는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학부모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확립과 학부모의 영유아 발달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나립 교수와 바른식습관연구소 김아람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두 강사는 각각 '우리 아이 이해하기: 발달의 결정적 시기와 개인차', '영양을 담은 내 자녀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했다.

특히 김아람 대표의 교육은 채소와 고기를 싫어하는 경우, 간식만 좋아하는 경우 혼자서 먹지 않는 경우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식습관 지도 방법을 제시해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높았다.

이어서 학부모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강의했던 김나립 교수와 김아람 대표 전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문용식 원장이 콘서트의 폐업을 맡았다.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하며 자녀를 훈육했던 방법들을 질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빠짐없이 받아 적었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반찬은 전혀 먹지 않고 밥만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교육을 들으니 이유식 때부터 습관이 잘못 된 것 같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아이의 식습관을 교



전주대가 위탁 운영하는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학부모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정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교육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를 위한 위생 및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매년 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캠프에 참여하며 다양한 체험, 공연, 놀이 등을 통해서 쉽게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있다.

/김재훈기자



무진장축협 진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지난 22일 진안군 조합원 및 축산농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을 축협 2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중 미완료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 진행은 무허가 적법화 지원단에서 정부가 제작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동 지침'과 오는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우리지역의 축산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이행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절차에 대해 교육 하였고, 우리지역에 무허가 축사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선도 캠페인 실시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지난 22일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건전한 사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각종 청소년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을 내 가족처럼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직원 및 공무원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평소 차량 소통이 많은 김제 중앙병원의 사거리에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 활동과 관내 상가지역을 방문하여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탈선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한 교월동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아토피 안심학교 심리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은 23일 아토피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극복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안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상담심리사 2명이 진행한다. 이달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 1회씩 운영되며, '나를 알아오, 내 인생의 사과나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등 자신의 감정과 욕구 탐색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며, 자기표현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특히 아토피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과 함께 아토피 질환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체험활동을 통해 또래 간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해 관내 학교와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경찰, 태풍 '솔릭' 대비 재난상황실 운영 대응태세 만전

무주경찰서는 제19호 태풍 '솔릭(SOLIK)'을 대비해 23일부터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21일 22일 이틀 간 경찰장비 점검 및 하천 등 침수 우려지역을 점검하며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재난상황실'은 경찰서장 지휘 하에 정보보안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과 상황반 각 갑부와 음부로 편성해 감우량과 풍속을 기준으로 동원 경력을 나누어 태풍 상황 종료 시 까지 운영 예정이다.

경비부서는 태풍 관련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생활안전 부서는 저지대, 관광지 및 캠핑장 등 야영객 사안대피를 유도, 교통은 침수 예상도로에 대해 예방근무를 실시하는 등 해당 부서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의무위반 예방 소통 간담회 추진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청문감사관실(과장 조효익)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18개 지구대·파출소 및 본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무위반 발생사례 및 치안고객만족도 향상방안 및 피해자보호·지원 공유, 지역경찰 예로·건의사항 청취, 모범·선형 경찰관 장려장 발급 홍보 등 주간근무 시간대를 활용해 소통과 공감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여름철 노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 만전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는 여름철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안순찰과 병행하여 교통사고예방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동지구대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 야간 밝은 옷 착용,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음주 후 오토바이나 농기계 등 운전행위 금지, 차량운행시 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수칙 홍보"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수 상동지구대장은 "관내 어르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전방위적 홍보활동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요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